

뉴저지

## 뉴저지 온누리교회 2019 말씀 부흥회



뉴저지 온누리교회(담임 Marc Choi 목사)는 7월 19일(금)~21일(주일)까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를 초청하여 “Revival”의 주제로 말씀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강단에 선 이찬수 목사는 “하나님과 대결하는 자의 어리석음”, “도전적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힘이다”, “두가지 간청”, “순종과 능력”, “행복한 목회(목회자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3일간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평생을 걸고 기도해야 할

두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정직에 대한 것과 자족에 대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신은 그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기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찬수 목사의 진실된 고백과 순수 복음을 전하고자하는 열정이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권유진 성도는 “3일간 계속된 이찬수 목사

님의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성취 그리고 내일을 향한 기대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임을 바라보며 뜨거웠던 3일간의 부흥회로 인해 주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잦은 말씀 부흥회를 통해 조용한 일상에 일어나는 성령의 부흥이 자주 샘솟길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

고, 권미향 성도는 “일상 안에서의 영성 관리는 제게 많은 도전을 주었고,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선 순위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장동원 목사

뉴저지

## ComeUnity Campus를 시작한 뉴저지 온누리교회



뉴저지 온누리교회(Marc Choi 담임)는 6월 16일 뉴저지 워싱턴 타운십에 ComeUnity Campus를 개척하였고 7월 7일 Bethany Community Church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창립을 축하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30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이 날 강단에 선 박종길 목사(서빙고 담당)는 “Acts 29를 써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령으로 임태한 교회,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나누며 정직과 순결과 거룩이 있는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함을 전하였다.

말씀 이후 바이올리니스트 윤정원의 연주와 Praisys 여성 3인의 보컬 특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ComeUnity Cam-

pus는 신앙이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자들을 위하여, 신앙이 없는 비신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이다. 기존 교회와는 다른 컬러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고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ComeUnity Campus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장동원 목사

## 산타모니카

## 산타모니카 온누리 청년부 비치 피크닉



산타모니카 온누리(정장철 목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은 지난 8월 3일(토)에 비치 피크닉을 가졌다.

40여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비치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엠씨단들이 수고해 준 덕분에 맛있는 핫도그와 과일 그리고 캠프 파이어가 어울어져서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누가 주도적으로 인도해 나가지 않아도 처음 온 새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기존 멤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서로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이번 비치 피크닉을 다녀온 몇몇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번 청년부 비치 피크닉은 저에게 캘리포니아의 바다가 이런 곳이라는걸 느끼게해준과 동시에 매우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긴 바다 나들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맛있었고 맑은 날씨덕에 해가 질 무렵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생긴 노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번 더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청년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으며 준비하느라 고생한 리더단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철규 형제)

“그날의 눈부신 햇살과 파도 그리고 시원한 바람은 복잡했던 나의 마음을 풀어주는듯 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사는데도 올해 처음으로 바닷가를 왔다는 사실에 놀랐고 내가 얼마나 여유없이 살고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용기종기 모여 앉아 함께 먹으며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수 있어 좋았습니다. 노을빛 함께 맞을때엔 시시한 가위 바위 보 놀이마저도 설레이고 어린 아이로 돌아간듯한 깨끗한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손길 손길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덕분에 진한 추억거리를 남겼습니다.” (정은진 자매)

산타모니카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속에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까지 더 풍성히 누려가기를 소망해 본다.

진영국 목사

## 얼바인

## 얼바인 온누리, 창립 16주년



얼바인 온누리 교회 (담당 박신웅 목사)가 16주년 창립 기념을 맞아 지난 8월 4일 감사예배를 올렸다. 박신웅牧사는 그간 받은 축복을 감사하며 사도행전 13장 1-4절의 말씀으로 “교회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현재 어려운 한국 교회의 위기상황을 지적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일이

너무 어렵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안디옥 교회를 예로 들었다. 작고 어려웠던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얼바인 온누리 교회가 이 같이 세대와 인종을 아우르며 다음 세대 리더십을 양육하는 역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모든 성도들이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 “다음 세대 리더를 양육하는 교회가 될 것”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다. 예배 후에는 온 성도들을 위한 무료 식사가 제공되어 지난 16년간 교회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기뻐 감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창립 기념 행사로 매년 진행 해 오는 ‘Food Truck Friday’를 열었다. 교회 근처 30여개의 회사에서 500여명의 직원들이 교회로 와 타코, 햄버거, 핫도그, 디저트를 즐기며 온누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누렸다. EM 공동체를 중심으로 대학 청년부와 성인공동체가 함께 하여 테이블 세팅에서 서빙, 안내까지 열띤 나눔의 현장이었다. 처음 교회에 와 본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 소개도 하고 함께 식사하며 풍성한 섬김의 사역이 됐다. 박신웅 목사는 이 자리야말로 안디옥 교회의 현장이 아닐까 벅찼던 소감을 전했다.

이진아 객원기자

## 얼바인 온누리교회 선교 컨퍼런스

얼바인 온누리 교회(담당 박신웅 목사)는 지난 7월 19-21일, 북한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Y박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선교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선교 컨퍼런스를 열었다. Y박사는 서두에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두렵고 긴장감이 감도는 현재 상황 속에서도 믿는 우리들 만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양쪽의 화해를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날 저녁에는 ‘북한 선교’ 주제로 강의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Y박사의 가족을 북한으로 인도해주신 여정과 여러 에피소드를 섞인 간증을 통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했다. 둘째 날에는 ‘선교와 사명’ 주제로 북한 선교 전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강의에 참가했던 한 성도는 평소에 북한 선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막막했는데 알지 못했던 여러 전략을 듣게 돼 뜻깊었다고 소감을 나눴다. 마지막 날은 ‘의료 사역’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였다. 이 날에는 특별히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다양한 선교 전략을 듣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어떻게 적용시킬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다.

얼바인 온누리 교회는 이번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 북한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그곳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게 됐다. 참가한 모든 성도들과 북한 땅에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ACTS 29 소명과 비전을 다시금 깨닫고 열방 선교를 위해 전진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진아 객원기자

## 밴쿠버

## 밴쿠버 온누리교회, 호말코 원주민 아웃리치 실시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8월 5일~9일 밴쿠버 아일랜드의 호말코로 원주민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선교 비전을 '온누리교회와 원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화'로 정하고 아웃리치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부활절기간 동안 원주민 차세대리더 7명을 초청, 리더쉽 수련회를 하였고 이바울, 송유순 선교사님과 신학을 공부하는 4명의 신학생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으로써 유대를 강화하였다.

이번 아웃리치는 아웃리치에 참가하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을 목표로 6월말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기도하며 준비해왔다. 특히, 준비모임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섬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아웃리치는 Teen Camp와 성인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Teen Camp는 요한1서 2:28의 '그 안에 거하라(Abide in Him)'는 주제로 원주민 차세대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였다. 현지에서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적극 참여하였는데, 교사이자 목회자이며 원주민 청소년사역에 비전을 가

진 Carl과 인근 North Gate Church를 담당하는 Evan목사님, 그 지역 원주민 밴드에서 청소년사역 및 펀드레이징을 담당하는 Edith 등이 설교 및 간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특히, 저녁 집회에서 Carl은 폭력가정에서 자라온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고백하고, 방황하던 중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 간증함으로써, 원주민 차세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눈물로 고백하는 성령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성인사역은 가전제품 수리, 주택 보수사역, 전도 및 농장사역을 준비하였다. 각 가정 방문시 전달할 전도지 'The Utmost Happiness'와 전도팔찌, 전도 기프트를 준비하였고 '아들람농장'을 통해 축적된 마늘농사기술을 활용하는 농장사역을 추진하였다. 호말코밴드에서도 농장사역을 통해 밴드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협동심 고취하고, 유희지를 활용함으로써 향후 소득증대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원주민 차세대 리더들의 활약이 감동을 안겨주었다. 작년 아웃리치에서 결혼식을 가진 Koji와 Jaimee는 그들 사이에서 탁월한 영적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Reily는 뛰어난 친화

력으로 온누리차세대와 원주민차세대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분위기메이커로서 역할을 하였다. Justice와 Skyler는 캠프내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울했지만 캠프기간 동안 점차 밝은 웃음을 되찾았던 Timothy와 처음 캠프에 참가했지만 온누리팀에게 조금 더 머물다 갈 수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던 Phoenix를 통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느끼게 되었다.

4명의 신학생들은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심야 순찰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집회 중에는 자신들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선교사님들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4박5일의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내년 아웃리치를 준비하기 위해 호말코밴드의 형제밴드인 슬라이아몬을 감사하였다.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앞으로도 호말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형제밴드인 슬라이아몬으로 선교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올해의 호말코 원주민 아웃리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캐나다 원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와 감동의 연속이었다.

유용진 집사

## 뉴욕

## 뉴욕 IN2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Base Camp 예배드려



2019년 8월 18, 뉴욕 IN2 온누리교회 M2 공동체(대학청년부)는 Base Camp 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다. 이은택 목사는 높은 산을 오를때 Base Camp가 필요하듯,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 오시고 만나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인 Base Camp가 필요하다고 선포했다.

요한복음 4:14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뉴욕 맨하탄과 대학캠퍼

스에 베이스캠프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시작했고, 사마리아여인의 성경스토리텔링, 성경 말씀으로 만든 곡으로 특순, 미리 적어낸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등 예배자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다.

이번 Base Camp 예배를 통해 오수경 자매는 “첫 베이스캠프 예배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다시한번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 메말랐던

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단단해져있던 마음에 은혜가 샘솟았습니다. 역시 주님만이 저를 목마르지 않게하시는 영원한 샘물이십니다.” 라고 전했으며, 정현민 형제는 “분주한 뉴욕의 하루하루는 우리를 압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베이스캠프가 되신다면 우리는 뉴욕을 넘어서 세상을 품는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 예배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자 이정표이심을 오

롯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앞으로도 이어질 Base Camp 예배가 뉴욕 곳곳의 대학 캠퍼스 속에 베이스캠프가 되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IN2 온누리교회

## 관

## 여름 성경캠프 은혜 가운데 마쳐 “모세의 세가지 선물, 우리도 누리요”



관온누리교회는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간 여름성경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유치부 소속 아웃리치 팀으로 오신 16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캠프는 ‘모세-세가지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만남, 사랑, 구원이라는 세 가지 선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것을 배우고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에는 관온누리교회 차세대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아동들과 타 교회에 소속 중인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으며 예꿈, 꿈땅, 파워웨이브로 그룹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반갑게 맞아주는 아웃리치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느덧 선생님들과 친해진 아이들은 신나는 찬양과 율동, 재미있는 말씀, 다양한 대그룹, 소그룹 활동 등으로 ‘모세’의 삶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온

몸으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캠프에 참여했던 이승리군(꿈땅, 6세)은 “캠프에서 열 가지 재앙과 십계명을 배우고 외워서 엄마에게 말씀 드렸더니 엄마가 칭찬해 주셨어요”라고 전했다. 김승하군(꿈땅, 7세)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라고 전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캠프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캠프 둘째 날 오후에는 교회 뒷뜰에서 신나는 물놀이 시간을 보냈다. 대형 슬라이드와 물놀이 기구들, 그리고 물총, 물풍선, 비누방울, 볼풀공까지 준비되어 아이들 모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 놀았으며, 특히 아웃리치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섬겨 주었다. 또한, 캠프 마지막 날에는 캠프의 하이라이트, 바로 달란트 시장이 열렸다. 아이들은 그 동안 열

심히 모은 달란트로 맛있는 달고나, 떡볶이, 닭꼬치 등 간식도 사먹고, 한국에서 준비해오신 다양한 선물도 고르며 행복하게 캠프를 마무리했다. 양손 가득 선물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과 흐뭇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 지난 3일간의 행복한 추억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아이들, 그리고 각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여름성경캠프는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 되었다.

캠프에 참여한 자녀들과 부모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행복한 3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관온누리 예꿈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희 사모는 “캠프 기간내내 식사와 간식 준비 등으로 열심히 섬겨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앞으로 도 쪽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

했다. 또한, 길혜영 목사(서빙고 온누리 유치부 담당)는 “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늘 기도로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캠프를 마치고, 모든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 서빙고 아웃리치팀과 만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한 것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뤄 냈던 지난 3일 속에, 그리고 교사들 각자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엡 4:4)